

초림은 아담 역사요, 재림은 하와 역사다 작성일 : 2010. 02. 19 (금) 새벽 2:30 - 3:20 작성자 : 주이랑 (서울 진실한, 출판국)		고로 그는 내 아버지 뜻 곧 하늘의 책임분담으로 창조되었고, 탄생하였으며, 하늘의 책임을 감당할 '메시아'격 인물이었다.	(네, 예수님 저는 절대 믿습니다)
2010년 2월 15일 새벽기도 중 예수님께 “예수님, 저는 성경에 대해 아는 것도 많이 없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많이 배우고 싶는데 예수님 저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창세의 역사를 자세히 읽어보아라. 에덴동산의 역사는 단순히 실존했던 아담과 하와의 역사만을 집필해 놓은 것이 아니다.	사도바울이 나에 대해 증거 할 때 ‘아담’을 들어 이치로 설명한 까닭은 나 역시 아담과 같이 내 아버지 뜻에 의해 창조되어 탄생한 ‘구원자’요,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나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완전한 자로 이 땅 가운데 거하였다. 신성은 곧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나의 영체요, 인성은 곧 완전한 육신을 말한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는 무엇을 배우고 싶으나?”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재림 때 육신으로 오셔서 직접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모두가 재림 역사를 실감하며 좋아하고 기뻐할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도 원래 신으로 존재하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내려오셨다면, 재림 역사에도 영의 몸이지지만또 육으로 내려오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여쭙보았습니다.	이는 곧 내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구원 역사의 모형이요, 상징임을 절대 깨달아야 한다. 고로 쉬이 깨달을 수도 없고, 쉬이 알 수도 없는 역사의 비밀들을 간직하고 있느니라. 역사에 있어 중심인물은 크게 아담과 하와로 나뉘어진다. 이는 다른 말로, ‘하늘의 책임분담 역사’와 ‘땅의 책임분담 역사’ 라고도 할 것이다.	고로 사도바울이 증거 하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한 것이다.(롬5:14) 고로 아담이 내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의 타락은 곧 구약 주관권의 모든 자들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것처럼, 나 예수 역시 내 아버지의 구원을 향한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나 예수가 이 땅 가운데 내려왔으며, 살려주는 영이 됨으로 내 안에 모든 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 이치를 설명한 말이다.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나 예수는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으로 탄생하여 33년 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였다. 이것을 진정 믿을 때, 더욱 깊은 역사의 비밀을 알 수 있으니 절대 믿고 나의 말을 받길 바란다. (예수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 믿지만 제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 보니 온전히 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예수님, 예수님은 이 땅에 게실 때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명을 알고 계셨으며, 신과 같은 능력을 지니고 계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재림 역사는 하와역사라 안되지. 나에 대해 배우고 싶으면 성경을 자세히 깊이 읽어보아라. 내가 감동으로 이끌 테니 역사의 깊은 비밀을 배워보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깊은 말이니 더욱 세밀히 들어야 한다. 먼저 구원을 보아라. 구원은 하늘과 땅의 만남이요, 구원자와 구원받을 대상자의 만남이다.	즉, 아담과 나는 하늘의 책임분담을 감당하고자 탄생된 중심인물 이니라.	특히 예수님 제자 누가가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기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하였는데 이는 어떤 이치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신약성서를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해 놓은 말씀들을 깊이 있게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2010년 2월 19일 새벽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초림은 아담역사요, 재림은 하와역사다.”하시며 이치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길, 상대로 지어진 짝이 만나 완성을 이루는 것이 내 아버지 역사라 말하였다.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되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고, 구원자와 대상자가 하나 될 때 완성의 역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구원은 내 아버지가 너희를 ‘먼저’사랑함으로 시작된 역사다. 이는 하늘이 먼저 너희에게 ‘진리’를 알리며, ‘구원’을 알린다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이 땅 가운데 완전한 육신을 쓰고 완전한 인간으로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 예수님 말씀 * 내 신부야. 내 아버지 역사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다. 다른 말로, ‘신랑’과 ‘신부’의 역사다. 이는 깊은 상징의 말이니 깊이 새기어 깨닫길 바란다.	구원자와 대상자가 만나 하나 되기 위해서는, 구원자의 책임분담과 대상자의 책임분담이 필요하다. 구원자가 제 아무리 목숨까지 버리며 구원의 길을 내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대상자가 자기의 책임을 다해 구원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구원의 역사는 완성될 수 없다.	즉, 내 아버지가 허락하사 먼저 스스로의 존재를 알리고, 천국을 알리시며, 구원을 알리고, 영생을 알리고, 진리를 알리사 ‘시작의 물꼬를 트신다.’는 것이다.	또한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사탄을 이기었기에 온 인류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낼 수 있었음을 분명 알아야 한다. 나의 영은 분명 완전한 존재였지만 나의 육신과 정신은 너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으로서, 분명한 육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으며 내 아버지가 정하신 육의 법칙 안에서 역사하였느니라.
6000년 구원 역사를 보아라. 내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시나 각 시대마다 세운 ‘중심인물’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시며 쉬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지구촌 작은 에덴에서	아담의 탄생을 자세히 보아라. 그는 그의 수고와 책임으로 ‘생명’을 지니게 된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강권적인 역사로 탄생부터‘생명’을 지니었다.	인류가 진화됨에 따라 육의 성장을 어느 정도 이루었을 때 내 아버지는 ‘먼저’ 생명을 가진 아담을 낳아 기르시고 그와 교감하시며 그를 통해 자신을 알려 ‘사랑의 역사’를 모든 인류가운데 시작하였다. 이것이 바로‘하늘의 책임분담’으로 이와 같은 하늘의 강권적인 역사는 아담, 그리고 나 예수 외에는 없느니라. 너는 내가 창세전부터 내 아버지 곁에 함께 했으며, 창세의 역사를 함께 진행해 왔음을 진정 믿느냐?	고로 나는 내 아버지가 정하신 육의 법칙 안에서 나의 육과 정신이 성장하였으며, 육과 정신이 성장함에 따라 내 아버지와 내 영과의 교통을 이루어 나갔다. 철저히 인간에게 허락하신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였음을 절대 잊지 말아라. 이치로 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축복 자녀를 보자. 그들은 탄생부터 나의 섭리의 은혜와 혜택을 받으며 그들의 영을 성장시켰다.

고로 나를 믿지 않는 여느 성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성장을 이룬 자도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영적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그의 육과 정신이 성장을 이루지 못했다면 결코 온전히 나의 말을 받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며, 나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이치로 나도 육과 정신의 온전한 성장 아래 내 아버지와의 교감과 내 영과의 교통을 점차 확대시켜 나간 것이다.

그리하여 누가 기록하기를 자라면서 나의 지혜가 더해졌다 증거 하게 된 것이다.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은, 지금은 너에게‘본능으로 알았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구나.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사생애 30년은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육신을 배우고, 육신의 고통을 배우는 시간이라 할 수 있지. 가난을 배우려면 가난을 직접 체험해 봐야 하며, 궁핍함을 배우려면 궁핍함을 직접 체험해 봐야 하며, 근심을 배우려면 근심을 직접 체험해 봐야 하지 않느냐. 이는 변하지 않는 배움의 법칙이다.

내가 영으로 아무리 안다 하여도 육으로 직접 경험하여 알지 못하면 육인 너희의 고통을 100% 이해할 수 없는 법이다.

또한 나의 사생애 기간은 육의 각종 고통을 이기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기간이었다.

고로 그저 고통을 겪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서 승리함으로 육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조건의 시간이었다.

내 신부야, 나 예수에 대해서는 내 아버지께서 인봉하신 부분이 많으니라. 때가 이르면 밝혀 전할 것이 있고, 또 밝히 전하지 못할 것이 있다.

이는 땅의 말로 쉬이 말할 수 없는 영적 역사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기서 이만 인봉하도록 하자. 네가 알아야 할 것은 나는 창세전부터 존재했던 신으로 본래 사탄을 이긴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탄에게 매인 바 된 너희의 육신을 구하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허락했으며, 육신의 몸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이와 같이 33년 내 육신의 삶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하늘의 책임분담의 역사였다. 나의 책임은 곧 ‘구원자’로서 너희 가운데 구원의 길을 내는 것이었다.

고로 요한복음 3장 16-1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분명한 이유임을 진정 깨달아 알길 바란다.

땅의 편, 땅의 책임분담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중심인물이 있으니 바로‘하와’가 그 상징이다.

하와의 탄생을 자세히 보아라. 그녀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탄생하였다고 기록되었다. 이는 곧 땅의 사람들 중에 택하여 아담의 보조자로 세웠음을 의미한다.

이는 확대시켜, 중심인물 중에 땅에서 태어나 땅의 책임 분담의 조건을 세운 자를 상징한다.

신약 역사의 하와의 상징은 바로‘세례요한’이었다. 그는 분명 하늘의 뜻이 있어 낳은 바 되었으나 성령으로 잉태된 나 예수와 달리 사가라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잉태되어 낳은 바 된 땅에 속한 자였다.

또한 그는 구원자인 나 예수와 달리 나로부터 구원받아야 할‘대상체’였다. 차이를 알겠느냐?

내 사랑아, 내 진정 말하노니, 나는 ‘마지막’ 아담이다. 나는 아담이 세우지 못한 하늘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

고로 내 이름 외에 다른 ‘구원자’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셨다.

결국 나는 구원 역사 에덴동산의 아담이며,

역사적으로 초림 역사는 하늘의 책임으로 구원의 길을 낸 아담의 역사요, 신랑의 역사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재림은 어떠하겠느냐? 내 진정 말하노니 재림 역사는 구원 역사 에덴동산의 하와와 같은 역사로서, 땅의 책임을 다하는 역사다.

고로 내가 육을 쓰고 땅으로 내려가 재림 역사를 감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으로 강림하여 땅에서 낳은 바 된 하와 격 상징 인물과 일체되어 땅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하여 재림 역사를 하와의 역사라 할 만큼 하와의 책임이 중요시 되는 역사인 것이다.

(예수님, 많은 중심인물에 대해 말하길 ‘타고난 자’라 말합니다. 그러니 중심인물들도 분명 하늘의 뜻이 있어 창조된 자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심인물은 모두 ‘타고난 자’로서 하늘의 소명을 지니고 태어난 자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 예수와 다른 것은 나는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구원자로 존재한다며, 중심인물들은 완전한 인간으로 구원을 받아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어떤 뜻 혹은 달란트에 있어 타고난 자와 타고나지 않은 자의 차이는 ‘책임을 다했을 때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타고난 자는 책임을 다한다면 그 뜻을 이룰 수 있지만, 타고나지 않은 자는 제 아무리 책임을 다 한다 하여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이는 구원 역사의 사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치의 말이다. 곧, 제 아무리 인간이 ‘구원자 사명’에 오르고 싶어도 절대 오를 수 없나니, 구원자는 오직 내 아버지 책임에 의해 낳아 길러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 신부야, 네가 진정 기억해야 할 것은, 중심인물들은 ‘타고난 자’들이지만 책임을 다함으로‘뿔힌바 되었다’는 점이다.

모든 인간을 보아라. 각각의 달란트와 소명을 지니고

태어나지 않느냐.

인간은 누구나 각각의 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자는 그 뜻을 완전히 이루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갖가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자가 있다. 결국 이루는 자가 역사의 주인이 되며, 뜻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중심인물들은 각 시대의 구원 역사마다 세워야할 조건을 세움으로 자신에게 둔 뜻을 이루게 된다.

내 아버지는 쉬지 않고 그들을 살피시며, 그들이 땅의 책임을 다하도록 격려하고 도우신다.

재림 역사에 있어 ‘하와’와 같은 표상은 완전한 땅의 책임을 이루어야 하기에 아담 격인 나 예수와 같은 심정의 길을 걸으며 나의 보조자로 역사를 이룬다.

그는 재림 역사에 있어 나를 맞을 ‘신부의 표상’이다. 이는 땅에 있는 자 중 가장 크고도 큰 이름이다.

재림 역사는 곧 구원 역사의 에덴동산의 하와와 같은 입장으로, 이를 통해 완전한 하늘과 땅의 만남을 이루게 된다. 결국 초림은 에덴의 아담, 재림은 에덴의 하와와 같은 역사로 이로써 에덴의 역사가 복직되는 이치다.

재림 역사의 하와의 표상이 누구인지 깨달아라. 그의 귀함을 진정 깨달을 때, 내 역사의 깊은 비밀도 더욱 깨달아 알 수 있을게다.

너희에게 전한 나의 말은 이치의 말임을 깨달아 더 깊이 기도하여 더 깊이 깨우쳐 알길 바란다. 사랑한다. 안녕.